21C 화학산업 발전을 위하여!

“아, 웬수같은 중국이여?”

중국에 대한 PE(Polyethylene) 수출이 다시 중단돼 2000년 중국산 마늘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로 촉발됐던 한-중간 통상마찰이 재연될 조짐이라고 한다. 한국정부가 마늘 수입을 늘리겠다는 2000년8월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보복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들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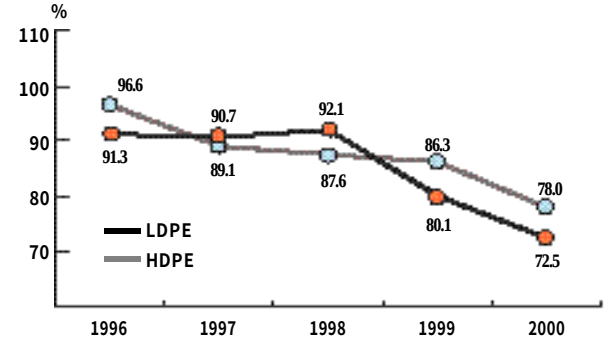
최근 중국의 수입기업이 한국산 PE를 수입하기 위해 L/C(수입신용장)을 개설하려 했으나 중국당국으로부터 거부당했다는 것이다. 중국 수입상이 한국산 PE 수입에 필요한 등기증명을 신청했으나 대외경제무역위원회에서 증명서 발급을 거부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중국이 한국산 PE에 대해 L/C 개설을 거부한 조치는 한국산 PE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L/C 개설이 거절된 회사는 PE 생산 8개사로 나타나고 있고, 중국 현지에서는 중국정부가 한국산 PE에 대한 수입금지를 재검토하고 있다는 소문이 번지고 있다고 들리고 있다.

PE 생산기업들이 긴장하는 것은 당연지사이고, 대책마련에 착수했다고도 들린다. 정부가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큰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시급하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PE는 물론 휴대폰 단말기에 대해서도 비슷한 조치를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이 2000년 6-7월 마늘분쟁으로 2개월동안 LDPE, LLDPE, HDPE 15만톤 정도를 수출하지 못해 약 1억달러의 피해를 입었으니 놀라고 당황스러운 것은 당연할 것이다. 더군다나 2001년 들어서는 석유화학제품 수출부진이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활성화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잘못 대응하면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PE의 중국수출 의존도



정부와 석유화학기업들이 힘을 합쳐 적극 대응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고, 중국이 직접적으로 한국산 PE 수입금지 또는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만, 한국정부 입장에서는 중국산 냉동·초산마늘을 저율관세로 대량 수입하면 농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게 되고, 중국과의 약속을 파기하자니 석유화학 및 전자·반도체산업이 타격을 입을 것이 확실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곤란한 상황이다.

문제는 한국 정부가 중국과의 협상에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한 것과 함께 한국 석유화학기업들의 중국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일 것이다. 중국산 마늘 수입약속이 어찌할 수 없었다고 한다면, 아니 중국과의 통상마찰이 표면화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대응책을 마련했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합성수지 수출비중이 생산량의 50-70%에 이르고 있는 현실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에 대해서만 대책을 내놓으라고 아우성치는 것은 대기업다운 자세가 아닌 것은 물론이다. 화학저널은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중국수출 의존도를 낮추어야 한다고 강조해왔고, 중국과의 무역마찰이 발생할

것이라고도 예견해 대책마련을 촉구했었다.
그런데도 석유화학기업들은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허송세월하다 막상 일이 터지니까 또 다시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음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합성수지의 중국수출 비중을 90% 이상에서 70%대로 낮춘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그 정도를 가지고 할 일을 다했다고 내세운다면 할 말은 없다.

석유화학기업들은 대기업답게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하고 중국문제도 그 범주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자각하기바란다.

<화학저널 2001/4/16>